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농부 아모스

-복음으로 여는 아모스-

아모스 5:24, 디모데 전서 6:17-19

정윤돈 목사님

* **암5: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 **딤후6:17-19**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절대불가능한 영육 간의 모든 부분들이 자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과 나라와 민족, 가정과 후대, 그리고 세계복음화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건강과 경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절대계획과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언약의 레마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게 하시며, 말씀성취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 사랑의 확정과 하나님의 절대기준

1. 가정의 달과 절대적인 사랑 오늘은 아버지주일이다. 5월은 어린이주일, 아버지주일, 어머니주일, 가정의 달이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역시 공부를 잘하든 못 하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이유 없는 절대적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Agape)'이다. 이러한 사랑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한다. 세상의 기준은 다를지라도 성도에게 사랑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 밖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따지거나 법적인 정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복음이 아직 충만하게 확장되지 않은 모습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부부를 주신 것은 그 사랑의 원형을 통해 이웃과 세계를 향해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뜻이다. 이기적으로 내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2. 말씀으로 자아를 비우는 인생성공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하나님의 절대기준을 묵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예배성공이 인생성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의 거대한 대화가 예비되어 있는데 인간은 자주 말할 길을 찾는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이나 당부하셨다. 여기서 먹여야 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틀린 것, 망할 것을 듣고 먹으며 살아간다. 우리가 먼저 살고 남을 살리려면 나의 자아를 말씀으로 바꾸어야 한다. 내 중심, 내 고집, 내가 맞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세계복음화도 불가능하다.

3. 선교적 마인드와 상대방에 대한 수용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중우 선교사님의 얘기가 있다. 그분은 한국인이지만 선교를 위해 온 가족의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셨다. 한 번은 한국에서 온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독도'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 목사님은 독도가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주장했고, 이중우 선교사님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 목사님이 크게 분노하셨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본심은 일본복음화를 위해 그들의 문화와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선교적 자세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고 사랑이 이뤄지지 않는다. 중국선교를 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와도 같다. 중국에서 물러오는 황사 때문에 여러 문제를 불평하는 목회자에게 그 선교사님은 "중국선교를 하려면 황사조차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 기준만 옳다고 주장하면 결국 모두를 죽이는 길로 가게 된다. 물론 국가의 질서를 위한 법은 지켜야 하지만 가정, 이웃, 개인의 관계나 교회 안에서 법과 정의만 강조하면 다툼과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가 되고 만다.

4. 십자가 : 정의와 공의의 완성 정의(Justice)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공의(Righteousness)는 사랑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제책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용서받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동시에 누리며 이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다.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1. 인간 정의의 한계와 마이클 샌델의 '정의' 이 땅은 절대로 완벽하게 정의롭거나

나 공평할 수 없다. 정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우리 민족은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해 모범적인 민주화를 이뤘으나 법적인 정의만 앞세우면 사회는 직박해지고 자살률이 높은 '헬조선'과 같은 환경이 되기 쉽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배경과 성장과정, 입장을 감안하여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복음적 포용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복한 사회나 가정을 만들 수 없다.

1) 정의의 새 가치 기준과 딜레마

(1) 공리주의(Utilitarianism) : 17~18세기 산업혁명 당시 가난한 노동자와 농부들은 극심한 착취를 당했다. 이때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제안했다. 이는 당시 왕이나 귀족 중심의 법체계를 변혁하는 기준이 되었으나, 다수의 유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해도 된다는 맹점이 있다.

• 현대 사회와 소수인권 : 오늘날의 민주사회는 소외된 소수의 인권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대로 변모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의 경우, 성경적 질서와 질병의 위험성(에이즈 등) 측면에서 부딪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을 무조건 적대시하기보다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 가치의 딜레마 예화 :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 오른쪽 선로에는 다섯 명이 있고, 왼쪽 선로에는 한 명이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왼쪽으로 틀어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선택이다. 그러나 만약 그 한 명이 '내 아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정의의 한계이자 딜레마이다. 또한, 만약 살려낸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안전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현재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장담할 수 없다.

(2) 자유주의와 개인의 선택 : 두 번째 정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투표 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혜택이나 친분 때문일지라도 민주사회는 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해야 한다.

(3) 공동체주의(미덕과 공동선) : 거대 담론으로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투표방식 역시 최선은 아닐지라도 자악(次惡)을 선택하는 인간적인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2. 하나님의 정의(Mishpat)와 공의(Tzedakah)

1)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인간이 만든 정의의 기준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에 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온전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6:25 전쟁과 남북분단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한국은 역설적으로 국방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현재는 세계적인 무기수출국이 되었다. 국방산업에 종사하며 혜택을 입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단상황이 경제적 유익이 되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전쟁이나 분단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혹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이를 '전환위복(轉禍爲福)'이나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다.

2) 성령인도를 받는 선택의 기준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를 음조해야 한다.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라고 질문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이익, 자아, 개인이나 부부의 이익, 혹은 자녀나 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기도하며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인도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과 사단이 가져다주는 틀린 것, 망할 것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고아원에는 중학교 졸업반 아이들이 있었다. 그중 '정미정'이라는 아이는 가장 예쁘고 똑똑하며 믿음도 좋고 착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연을 알아보니 미경이는 교도소에서 태어나 아이였다. 미경이의 어머니는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살인을 저질러 18년 넘게 복역 중인 죄수였다. 미경이는 어머니의 출소시기에 맞춰 미용기술을 배우 돈을 벌어 주었다가 어머니가 사회로 나오면 직접 모시고 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실교자 역시 당시에는 그 선택이 안타까워 공부를 더 하라고 권유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가진 그 고귀한 마음을 꺾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미경이의 그 마음을 보시고 큰 축복을 내리셨다. 훗날 미경이는 압구정동에서 대형미용실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유명 호텔인 위커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대학공부 또한 스스로 힘으로 마쳤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세상적인 정형이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어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이다.

서론 : 정의로운 삶과 공의로운 변호자의 정체성

1. 농부 아모스가 짊어진 삶의 짐과 정의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경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분문의 아모스 선지자 역시 이러한 고민 속에 있었던 인물이다. 아모스는 본래 평범한 농부였으며, 그의 이름인 '아모스'는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양을 치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돌무화과(뽕나무)를 재배하는 노동자이기도 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엘리트가 아닌 직박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며 고된 삶의 짐을 지고 살았던 서민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아모스의 마음속에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유층은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다. 과거에는 세금을 내지 못하면 포학을 가하거나 장례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빈번했는데 아모스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직접 목격하며 살았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었을 것이다. 비록 그는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세상의 불의를 정죄하는 '정의'의 기준에만 갇혀 있다 보니 그의 내면은 마치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2. 법과 질서준수의 사회적 책임 그렇다면 정의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최대 합의이자 전체의 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키기 매우 어렵거나 불합리해 보이는 법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담론을 통해 수정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개인의 형편에 따라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성도는 사소한 규칙이라도 정직하게 지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교회의 정체성 : 정죄하는 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사명 그러나 법과 정의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전도할 수도 없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그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고백한다. 그는 비천한 노동자였으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체현하고 전도자로 거듭났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추구하는 검사나 경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 가깝다. 변호사는 아무리 용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장

에 서서 변론하고 살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변자이자 영적 변호사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황에 따라 검사처럼 정죄했다가 다시 변호사처럼 용서하는 등 기준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온전히 지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해야 한다.

1. 아모스서의 구조와 메시지

1)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1장~4장) 아모스 1장과 2장은 주변 모든 나라와 족속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란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적으로 살지 않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그들은 과거에 입었던 수많은 피해와 역사적 배교로 인해 주변의 이란이나 무슬림 세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 한다. 평화나 협상보다는 전쟁을 통한 생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민족과 정의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공의, 즉 복음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태도를 경고하신다. 3장과 4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과 고통이 임할 것임을 예고하신다. 부모나 스승, 혹은 목회자가 징계할 때 정신을 차려야 매를 피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신다.

2) 정의와 공의의 선포(5장~6장)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복음을 주셨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이다. 십자가의 용서와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그 공의의 핵심이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부유층의 교만과 사치를 꾸짖으시며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요구하신다.

3) 환상과 다림줄의 의미(7장~8장)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적 기준을 여러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림줄 환상'이다. 다림줄은 건물용 지를 매 수직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맞추는 줄이다. 피라미드 같은 거대 건축물이 오랜 세월과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림줄을 이용해 정확하게 설계하고 돌을 잘랐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복음과 말씀의 균형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 신앙은 비틀어지게 된다. '오직 복음'을 외치는 것이 단순히 외골수가 되자는 뜻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신앙은 무너지고 비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넓이와 높이, 깊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4)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9장) 아모스서의 마지막인 9장은 항상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신다. 성경의 흐름은 늘 일관적이다.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히 징계하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2. 하나님의 정의(Mishpat)

아모스서의 중심메시지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에서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법과 질서, 그리고 율법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정의(Mishpat) : 법과 사회 질서의 기초 출애굽기 23장 6절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명한다.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세상의 수많은 법과 정의, 질서는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는 최선을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次惡)을 선택하며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창세기 3장 이후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은 무복합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만으로는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빛과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최근 베스트 셀러 중 하나인 어느 책은 강남을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묘사한다. 그곳에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드물다고 고발한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기심과 배교주의, 갈등과 마약, 정신적인 질병이 가득하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법적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할 복음이 절실하다. 모든 것이 돈이 기준이 되어 부모와 형제가 원수가 된 현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다.

2)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정의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로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나" 하나님이 모든 길이 정의로롭고 진실하게 거짓이 없음을 노래한다. 최근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인력을 확충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법을 집행할 때도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는 복음적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아는 한 이발소 사장님은 집과 가게를 여러 채 소유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보유한 큰 부자이다. 그러나 그는 돈을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쓰지 않는 기박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 가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에게 돈은 곧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고 자식에게도 인색한 것이다. 이러한 노년층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법의 잣대로만 압박하면 갈등만 커질 뿐이다. 법을 지키도록 설득하되, 그들의 이름을 수용하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복음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정의로롭고 바른 중심을 사랑하셨다. 정의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사회가 바로 선다. 하지만 아모스는 불의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정죄에 갇혀 자신의 내면이 지속처럼 변화기도 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정의를 감회하게 보셨으나, 그가 정죄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복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3) 정의와 군사력의 관계 정의에는 아과 대적을 힘으로 제압하는 권세가 포함된다. 신명기 32장 41절은 "내가 네 반목을는 칼을 갈며"라고 말씀한다. 참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아덴만 작전은 정의의 좋은 사례이다. 우리 특수부대는 무력으로 해적을 제압했으나 생포한 무장병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재판하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정의(심판)와 공의(자비)가 함께 가는 모습이다. 무조건적인 평화주의를 내세워 충을 잡지 않는 것은 공산화나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성경적 정의는 악을 징벌할 힘을 전제로 한다.

4) 지도자의 정의와 공의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좋은 지도자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용서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5)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식과 투표 민주사회의 투표는 완벽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덜 악한 사람을 선택하는 차악의 과정이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또한 복음가진 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태도이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

정책의 옳고 그름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정의와 공의의 깊이를 알지 못한 채 법을 어기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며, 높은 수준의 복음적 기준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6) 심계명과 그리스도의 필요성 심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담고 있는 법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우상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 부모공경, 살인·간음·도둑질·거짓 증거·탐내지 말 것 등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다. 라오스로 파송된 어느 목사님은 심계명의 모든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고백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음욕을 품음으로 간음하며, 탐심으로 인해 영적인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다. 법과 정의만 강조하면 나 자신과 사회가 황폐해지고 사단이 틈타게 된다. 율법의 잣대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즉 공의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나 중심의 자비를 내려놓고 지극히 위은 복음의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조금만 복음적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쓰시고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2. 하나님의 공의(Tzedakah)와 구체적 실천

1) 여호와의 찾는 자에게 임하는 생명(암5:4, 6)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며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5장 6절에서도 다시 한 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리하면 살리라"고 강조하신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며, 나아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2) 실재 중에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암5:14)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조차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사랑이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5장 14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한다. 여기서 "너희의 말과 같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성도는 남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3) 기도의 방법 : 하나님의 일을 읊조림(사63:6, 77:12) 경제적 위기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성령인도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63편 6절에서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라고 고백했다. 또한 77편 12절에서도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라고 말한다.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행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하나님, 이 문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라고 조용히 주님과 대화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오직 나만을 위해 예비된 '이면계약'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러한 비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가득하게 된다.

4) 복음적인 미소와 전도자의 자세 안산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는 안치영 목사님의 일화가 있다. 법무부 관련 사역을 위해 목회자 모임에서 화장을 선물하는데, 많은 목사님 중 안 목사님이 선출되었다. 그 이유가 홍미로운데, 다른 목사님들은 인상이 다소 굳어 있어 범죄자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목사님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적인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읊조리고 담을 얻으면 영이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난다. 내 영이 살아야 중인의 삶을 살 수 있다.

5) 남은 자를 향한 회복의 언약(암5:15, 9:9)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중에도 항상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비록 현재는 흉년이 나그네나 순례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만드실 것이다. 또한 9장 9절은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하기를... 하리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나 때문에 내 가족, 부모, 친척, 친구,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살아야 한다. "한 생명도,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6) 원수까지 품는 세계복음화의 원상(암9:12) 아모스 9장 12절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예언한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에돔까지도 하나님께 기업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과거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라들조차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온 마리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내며 성도들이 대접하고 옷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았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모습에 마리아 목사님이 큰 감명을 받았다.

7) 미래를 향한 비전과 전문성(RUTC의 응답) 지난 홍콩 선교현장을 둘러보며 기도가 절로 나왔다.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22층의 한 층만을 임대하여 많은 유휴세를 내며 사역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 중에서 이 빌딩을 통째로 매입하여 RUTC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 주역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응답을 누릴 중직자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 응답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후대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다. 300% 곧, 전문성, 현장성,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고 '원니스(Oneness)'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팀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합하고 부족할지라도, 2030년에서 2080년에 이르는 미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선포하고 고백하며 기도한 모든 언약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는 단순히 적은 액수를 돕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해는 분문인 디모데전서 6장 17-19절은 부한 자들에게 땅에서 이름을 높이지 말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한다. 즉, 복음 안에서 선한 사업과 기업을 주도하며 세상을 살릴 정도로 큰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도전하게 바란다. 이것이 바로 원니스의 축복이다. 237나라와 5,000종족이 함께하는 세계정복의 축복이다.

결론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정의로운 삶과 공의로운 복음의 삶을 통하여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모든 후대 램넛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기문과 형제 친척, 그리고 직장과 산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